

구마모토현 전통공예관

구마모토현 전통공예관은 구마모토성 북동쪽에 위치하며 지역 공예품의 진흥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1 층 대형 판매점에서는 각종 전통 공예품을 판매하며, 2 층 갤러리에서는 구마모토현 지정 전통 공예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소개하는 주요 공예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히고 상감**

히고 상감이란, 조각된 얇은 철판에 은과 금을 이용하여 상감하는 장식 금공품입니다. 히고 상감의 기원은 호소카와 가문이 다스렸던 구마모토번의 초대 번주 호소카와 다다오키(1563-1646)의 비호 아래 번성했던 시기인 17 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도자기**

구마모토현에는 오랜 역사를 지닌 도자기가 많으며 이곳에서는 쇼다이야키, 고다이키, 아마쿠사야키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도자기들은 모두 400 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합니다.

- **민예품**

이곳의 특징적인 볼거리는 신사와 불탑을 일본 종이를 사용하여 크고 정교하게 재현한 ‘야마가 등롱’ 전시입니다. 구마모토현 북부 마을의 야마가에는 야마가 등롱을 신사에 봉납하는 600 년 이상의 전통이 있습니다.

- **향토 장난감**

구마모토현에서 제조되는 전통 향토 장난감을 다양하게 전시합니다. 원숭이를 본떠 만든 초벌구이 인형(고노하자루)과 나무로 만든 귀신 인형(오바케노 긴타), 왕겨로 심지를 만들고 각양각색의 무명실로 감아 완성하는 장식 구슬 ‘히고마리’ 등이 인기가 있습니다.

- **실용품**

이외에도 대나무를 엮어 만든 바구니, 상자 등의 생활용품, 가구와 교창 등의 목공품, 대나무 뼈대에 일본 종이를 붙여 만든 ‘구타미 부채’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장장이가 성행했던 무사 마을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식칼에서부터 정원용 가위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에도 고품질의 날붙이가 장인들의 손에서 탄생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형 전시품으로는 구마모토성에 있는 두 개의 천수각 지붕에 있을 법한

도깨비와 물고기 모양의 기와, 나무를 도려내서 만든 대형 일본 북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시품은 자세한 제작 과정을 함께 설명하며 실제로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작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층 뮤지엄 숏에서는 구마모토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를 통한 수익은 지역의 전통 공예품 지원에 사용됩니다.